

〈武屹精舍〉題詠詩를 통해 본 空間과 학적 家族의 관계와 그 의미*

한 의 송**

- I. 머리말
- II. 文世와 연대의 공간 〈武屹精舍〉
- III. 〈武屹精舍〉 관련 題詠詩의 창작 양상
- IV. 〈武屹精舍〉 題詠詩를 통해 본 空間과 학적 家族의 관계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武屹精舍를 중심으로 창작된 題詠詩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추적해 보고자 작성된 것이다. 무흘정사는 寒岡부터 후대 문인에 이르기까지 한강 학맥의 구심적 역할을 한 공간으로 중요하다. 무흘정사는 文世의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나 후대로 내려올수록 연대의 공간으로 의미가 더 부각되었다. 한강 문인들은 무흘정사라는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제영시를 창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학과 후학이 정서적 공유와 연대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때 무흘정사 제영시는 특정 공간을 추체험하여 회상하는 역할에 그치는 게 아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 F-2018S1A6A3A04042721)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교수 / lovehes@hanmail.net

나라 선현에 대한 회한과 존승을 통해 학적 家族으로 일체화하는 詩적 발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영시는 학인들의 정서적 친밀감을 끈끈하게 견인하면서 통시간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학적 가족의 연대 방식으로 그 의미가 새롭게 부각될 필요가 있다.

전통시대 가족은 家庭이라는 空間과 親姻戚의 血緣關係를 기본으로 한다. 이를 학맥에 적용시켜 본다면 精舍라는 공간과 師承이라는 학연관계로 대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한 학맥의 정서적 공유는 시간을 초월한 견실한 연대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비혈연적 관계망 속에 형성된 廣義의 家族이라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점은 전통시대 가족의 외연에 있어 학적 가족의 존재와 의미가 새롭게 조명될만한 것임을 의미한다.

본고는 무휼정사 제영시를 통해 학맥을 전통시대 비혈연적 가족의 관계망인 학적 가족이라 지칭하고 그 의미를 천착해 본 것에 의미가 있다. 무휼정사를 통해 형성된 학적 공유와 연대의 의미를 확장시켜 전통시대 학맥을 비혈연적 가족이 전변된 형태로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주제어

정구, <武屹精舍>, 題詠詩, 空間, 학적 家族, 연대, 비혈연 관계

I. 머리말

退溪 학파에 대한 연구는 嶺南 문화의 학적 전파에 대한 인문지리적 관점이 투영될 필요가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江岸學’¹⁾, ‘洛中學’이라는 개념을 통해 표명된 바 있듯이 퇴계의 淸涼山과 남명의 智異山 그리고 洛東江으로 대변되는 인문지리적 환경과 이를 적극 반영한 학맥의 활동 양상을 통해 확인되는 사안이다.

寒岡 鄭述(1543-1620)는 이러한 관점이 전일하고 적실하게 반영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강의 경우 퇴계와 남명의 문하를 드나들었고, 낙동강이라는 물을 중심으로 소통과 연대의 학문적 경향을 대표적으로 표상하는 인물에 해당된다. 때문에 한강은 퇴계학과와 남명학과 및 근기남인 학맥으로 연결되는 정점에 위치한 독보적 위상을 지닌 인물로 평가되었다. 이로 인해 한강학은 80년대를 기점으로 연구가 시작²⁾되었으며, 이후 영남 학맥 속에서 지속적인 위상의 재정립을 요청받은 결과가 학계에 속속 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³⁾

한강 학문의 핵심은 ‘心學’과 ‘禮說’로 집약되며, 『心經發揮』와 『五先生禮說分類』가 대표적인 저작에 해당된다. 달리 말하면 한강의 성향은 학자로서

-
- 1) 정우락, 「江岸學과 高靈儒學에 대한 試論」, 『退溪學과 韓國文化』43,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8 ; 「朝鮮中期 江岸地域의 文學活動과 그 性格 - 낙동강 중류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시론 -」, 『한국학논집』40,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0 ; 「성주지역 道學의 착근과 江岸學派의 성장」, 『영남학』21,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2 참조.
 - 2) 한강에 대한 연구는 80년대에 들어서야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서는 경북대 퇴계연구소에서 1985년에 김광순, 「寒岡의 生涯와 文學」 ; 최승호, 「寒岡의 持敬論」 ; 권연웅, 「『檜淵及門諸賢錄』 소고」 ; 정순목, 「寒岡 鄭述의 敎學思想」 ; 서수생, 「寒岡 鄭述의 禮學」 ; 금중우, 「寒岡의 政治思想에 관한 연구」 등이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고, 『한국의 철학』13집에 특집으로 수록한 바 있다.
 - 3) 윤천근, 『남인 예학의 선구 - 정구』, 한국국학진흥원, 예문서원, 2006 ; 정우락, 『한강 정구』, 예문서원, 2011 ; 남명학연구원 엮음, 『한강 정구』, 예문서원, 2011 ; 정우락, 『한강 정구와 무흘구곡 이야기』, 경인문화사, 2014 ; 『한강 정구의 삶과 사상』,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엮음, 『한강학의 성리학적 재발견』, 역락, 2018 참조.

의 위상이 독보적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문학가로서의 특장은 두드러지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한강의 저작은 나이 70에 蘆谷精舍에 보관되어 있던 장서가 화마로 소실됨으로 인해 그 전모를 다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일면만을 지적한 것이긴 하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한강의 저술을 통해 짐작해 보는데, 한강은 문학가이기 보다는 문인학자로서의 성향이 강함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한강의 문학가로서의 성향은 어떻게 추단해 볼 수 있을까? 전통시대 선비는 文思哲이 통합된 학문관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장을 지닌 분야가 두드러졌다는 것이지 어느 한 분야에 소홀하거나 능력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본인의 지향이 상대적으로 특정 분야에 더 집중되었다고 보는 게 온당할 것이다.

이는 燕巖 朴趾源(1737-1805)이 산문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시에 대해서 무관심했다거나 특징이 없었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리고 연암 역시 근래 들어 한시 작품이 발굴 소개되면서 시인으로서의 특징 또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현존 자료의 존재 유무로 인해 특정 성향을 아예 무시하거나 도외시킬 수는 없다.

이러한 정황을 비추어 본다면 한강 역시 문학가로서의 특징 또한 충분히 밝혀볼 여지가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선행 연구를 통해 한강의 漢詩와 유람록을 중심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⁴⁾ 한강 문학의 특질에 대한 고찰의 방향은 선행연구에서 선편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정우락은 “선비들이 남긴 무휼 관련 시문을 수집·정리하여 이들이 무휼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⁵⁾고 시문 관련 연구의 방향

4) 한강의 문학에 대해서는 한시와 유산록을 중심으로 연구된 바 있다. 한시에 대해서는 이원길, 「寒岡 鄭述의 漢詩 세계」, 안동대 석사학위논문, 1991 ; 송준호, 「寒岡 鄭述의 詩文學에 대하여」, 『東方漢文學』10, 東方漢文學會, 1994 ; 강구을, 「寒岡 漢詩에 있어서 觀物態도와 安分의 問題」, 『東洋禮學』60, 동양예학회, 2001 ; 구본섭, 「寒岡 鄭述의 도학적 시세계」,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04 참조. 유산록에 대해서는 박영호, 「寒岡의 <遊伽倻山錄> 研究」, 『남명학연구논총』5, 남명학연구원, 1997 ; 박영민, 「한강 정구의 <유가야산록>과 그 심미경계」, 『우리어문연구』29, 우리어문학회, 2007 참조.

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한강의 문학적 성향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연구 방향 지적을 참고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추적해 보기 위하여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武屹精舍라는 특정한 공간을 중심으로 창작된 漢詩를 수집·정리한 뒤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특정 공간으로 집약할 경우 그 공간이 학맥 내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규명할 수 있으며, 그 공간을 통해 형성된 사승과 교유의 의미가 보다 면밀하게 분석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家’란 선비의 내적 공간이자 혈연적 관계의 공간이며 ‘樓亭’, ‘書堂’, ‘精舍’ 등은 외적 공간이자 비혈연적 관계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안과 밖이라는 공간의 구분이 있긴 하나, 이는 물리적 구분일 뿐 심리적 관계에서 두 공간 사이의 관계는 밀접하게 연맥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특정한 공간을 중심으로 창작된 한시를 통해 師承과 交遊의 심리적 관계망을 추적해 보고, 그 의미를 학적 家族의 시각으로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II. 둔세와 연대의 공간 〈武屹精舍〉

한강이 무흘정사에 우거하던 시기⁵⁾는 같은 조식 문하에서 절친한 지우였던 來庵 鄭仁弘(1535-1623)과의 수년간에 걸친 논쟁으로 인해 심신의 안정을 모색하던 때였다. 원인이 된 사건은 1603년(선조 36)에 일어난 ‘東岡輓詞’ 논쟁과 그 해 겨울 『南冥集』 편찬과 관련된 문제가 대표적이었다. 이로

5) 정우락, 「寒岡 鄭述의 武屹精舍 建立과 著述活動」, 『한강 정구』, 예문서원, 2011, 434쪽 참조.

6) 정병호는 한강이 무흘정사에 우거하던 시기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자 무흘시대라 명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병호, 「寒岡 鄭述과 武屹時代」, 『동양예학』36, 동양예학회, 2017 참조.

인해 한강은 1604년 수도산 산중에 무흘정사를 세운다. 선행연구에서는 한강에게 있어서 무흘정사란 避世와 求道の 의미를 갖춘 공간으로 설립된 것이라 보기도 하였다.⁷⁾ 이러한 인식은 『寒岡集』 소재 「年譜」와 「寒岡言行錄」에 기록된 제자들의 언급을 통해 여러차례 드러난다.

㉗ 무흘은 골짜기 깊고 천석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빈객이 드물어 사람을 응대하는 일이 다소 뜸했으므로, 서적을 열람하며 학문에 전념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신해년(1611, 광해군3) 이전 7, 8년 동안은 무흘에 머물러 있는 때가 많았다.⁸⁾

㉘ 선생은 산수의 경치를 매우 좋아하였다. 처음에는 한강정사를 지었는데, 한강뒤편에는 천상정·어시헌·유정당·세심대가 있었다. 중년에는 회연초당을 지었는데, 그곳에 백매원·망운암이 있었다. 만년에는 무흘산 산중으로 깊이 숨었는데, 그곳에는 와룡암·산천재·만월담 등의 뛰어난 경치가 있었다.⁹⁾

㉙ 선생은 일찍이 말하기를, “출처와 행장은 군자가 지켜야 할 큰 절개이니 이에 대해 분명히 살펴보고 과감히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하였다. 만년에 차자를 올려 물러갈 것을 청한 뒤에 곧장 고향으로 돌아와 수도산 산중에 무흘정사를 지었는데, 마을 민가와는 100여 리나 떨어진 곳이었다. 구름끼린 첩첩산중에 골짜기 깊고 숲이 우거졌는데, 그 속에 서책을 간직해 두고 산승 두세 사람과 함께 생활하였다.¹⁰⁾

위의 예문 ㉗, ㉘, ㉙는 「한강언행록」에 기록된 제자들의 언술이다. 위의 언급들 가운데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무흘정사는 깊은 산속에

7) 김학수는 무흘정사를 피세와 구도의 공간으로 포착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학수, 「鄭述 文學의 創作現場과 유적에 대한 연구」, 『大東漢文學』29, 大東漢文學會, 2008, 153-166쪽 참조.

8) 鄭述, <類編>, 「寒岡言行錄」 1권, 『寒岡集』, 『한국문집총간』53, 배상룡

9) 鄭述, <類編>, 「寒岡言行錄」 3권, 『寒岡集』, 『한국문집총간』53, 이천봉

10) 鄭述, <附錄>, 「寒岡言行錄」 4권, 『寒岡集』, 『한국문집총간』53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마을 민가와 100여리나 떨어진 수도산 깊은 산중에 위치한 둔세의 공간을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 핵심이었던 것이다. 이는 세속과의 의도적인 절연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었음을 의미하는데, 한강의 연보를 통해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무흘정사가 완성되었다. 무흘은 성주의 서쪽 수도산 속에 있는데, 천석이 정갈하고 인가가 멀리 떨어져 있다. 선생이 이곳에 초가삼간을 세워 서책을 보관하고 편히 쉬는 장소로 삼았으나 그 깊은 뜻은 사람들을 피해 있고 싶어 서였다. 편액을 서운암이라 하였다. 서운암 밑에는 비설교와 만월담이 있고, 만월담 위쪽에 자이현이 있는데 나무를 엮어 만들었다. 서운암 동쪽에는 산천암이 있다. 바위틈에서 샘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소리가 마치 옥을 굴리는 것처럼 맑다. 주자가 지은 ‘깊은 밤 베갯머리 산골 샘 소리 [夜枕山泉響]’의 뜻을 취해 이름하였다. 그 위쪽에는 화룡암이 있고 그 위에 장암이 있는데, 바위 비탈이 깎아지른 듯 서 있고 반석이 평평하게 깔려 있다. 그 위에는 폭포가 흐르고 높이가 100여 척이나 된다. 그 왼쪽 곁으로 가서 말라죽은 고목을 태우고 터를 고른 뒤에 정자를 짓고 완폭정이라 이름하였다.¹¹⁾

위의 예문은 한강의 연보에 해당되는데, 밑줄 친 부분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듯이 무흘정사의 공간 용도는 장서와 휴식 그리고 둔세에 있었다. 시작점은 둔세에서 비롯되었으나 휴식 뒤에는 곧 장서를 활용한 강학과 편찬저술 등의 학문활동이 뒤따르기 마련이었다. 무흘정사는 기본적으로 장서의 기능이 계획되어 있었기에 학문활동의 공간으로 제격이었다. 이점은 한강이 무흘산신령에게 올린 제문을 통해 아래와 같이 피력한 바 있다.

삼가 고합니다. 구는 무디고 용렬하며 어둡고 태만한데 세속의 잡다한 일이 많으므로, 깊숙하고 외진 곳에서 학업에 종사하여 글을 읽고 품성을 수양하며 천신의 도움을 받아 다소 진보되기를 바랐습니다. (중략) 무엇보다도 세속 일의 속박을 받지 않고 곤궁한 처지를 달게 여겨 곳곳이 앉아서 학업에 더

11) 朴而章, <年譜>, 「附錄」, 『龍潭集』권5,

육 힘써 미묘한 의리에 밝고 인에 친숙해지며 선왕의 정풍을 노래하고 읊조림으로써 옛사람이 했던 것처럼 도를 즐겨 죽음조차 잊어버리고픈 소원을 이루도록 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¹²⁾

위의 밑줄 친 부분을 통해서 확인되듯이 한강은 제문에서도 학문의 진보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천명하였다. 이는 당대 학자에게는 당연한 현상으로 일면 특이한 것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강은 둔세하고자 찾은 무휼에서 심신의 휴식을 취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를 자양분으로 삼아 학문 도약의 轉機處로 무휼정사를 정립시키고자 한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후 무휼정사를 찾는 후학들에게 있어서 여타 정사들에 비해 무휼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자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지점이었다.

때문에 한강은 무휼정사 우거시에 편찬, 정리하는 활동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 이 시기에 정리된 『濂洛羹牆錄』, 『洙泗言仁錄』, 『景賢續錄』, 『臥龍巖志』, 『谷山洞庵志』, 『武夷志』, 『治亂提要』, 『古今人物志』, 『儒先續錄』, 『讀書要語續選』 등의 저작물이 이를 잘 대변해 준다.

이들 저작물은 1604년에 건립하여 1612년에 노곡으로 이거하기 전까지 기간동안 편찬된 것¹³⁾으로 무휼정사의 기능이 둔세의 도피처로만 기억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위와 같은 저작물을 편찬, 보관한 무휼정사의 장서 기능은 후학과 시간을 뛰어넘는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훗날 무휼정사가 移建과 重創을 거듭하면서 지속될 수 밖에 없었던 맥락에 핵심으로 작용하였다.

그렇다면 무휼정사를 중심으로 시를 읊은 작품의 맥락 속에서 이점을 실제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 작품을 통해 실제적 양상을 확인해 보기로 하자.

12) 鄭述, <祭武屹山文>, 『寒岡集』속집 제9권, 『한국문집총간』53, 483쪽

13) 이 시기 한강이 편찬, 저술한 서적에 대해서는 김학수의 전제 논문, 각주 47번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III. 〈武屹精舍〉관련 題詠詩의 창작 양상

한강이 무흘정사 우거기에 창작한 무흘정사 관련 詩는 그 양이 많지가 않다. 武屹九曲¹⁴⁾에 대한 시는 상대적으로 한강 문인의 문집 속에서 드문드문 보이는 편이다.¹⁵⁾ 그러나 무흘정사만을 소재로 하여 창작한 시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는 무흘정사라는 공간을 무흘구곡 가운데 일부로 인식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공간에 은거하면서 창작한 한 시는 그 양상이 둔세적이며 소극적, 회의적 경향을 자연스레 띠기 마련이다. 일면 세상과의 단절을 위해 찾았던 공간에서 창작을 한다는 것은 그다지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무흘정사만을 소재로 하여 창작한 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강의 〈武屹夜詠〉과 두와 최흥벽의 〈武屹雜詠〉, 최린의 〈武屹精舍八詠〉¹⁶⁾등이 대표적으로 문집에 수록된 무흘구곡 관련 시를 찾아 표로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1】 武屹九曲 관련 詩¹⁷⁾

연번	작가	생몰연대	문집	작품명	비고
1	鄭述	1543-1620	『寒岡集』卷1	〈仰和朱夫子武夷九曲詩韻十首〉, 〈武屹夜詠〉	
2	徐思遠	1550-1615	『樂齋集』卷1-2	〈山泉庵〉, 〈武屹上寒岡先生〉, 〈臥龍巖〉	

14) 한강의 武屹九曲은 1곡 鳳飛巖, 2곡 寒岡臺, 3곡 舞鶴亭, 4곡 立巖, 5곡 捨印巖, 6곡 玉流洞, 7곡 滿月潭, 8곡 臥龍巖, 9곡 龍湫로 구성되어 있다.

15) 徐思遠의 『樂齋集』 소재 〈山泉庵〉이 대표적이다.

16) 崔麟, 〈武屹精舍八詠〉, 『梅窩集』 권1

17) 표는 기본적으로 『회연급문제현록』에 수록된 한강 문인 324명의 문집을 일별한 뒤에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러나 필자가 과묵한 탓으로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누락된 작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으로 발굴 작업을 진행하여 보충하고자 한다.

3	裴尙龍	1574-1655	『藤庵集』卷1	〈武屹齋有感。示同來諸君子〉	
4	崔麟	1594-1644	『梅窩集』卷1	〈武屹精舍八詠〉	棲雲庵, 飛雪橋, 滿月潭, 自怡軒, 石泉庵, 臥龍巖, 場巖, 翫瀑亭
5	金聖鐸	1684-1747	『霽山集』卷2	〈次紅流洞韻〉	
6	崔興璧	1739-1812	『蠹窩文集』卷之二	〈武屹雜詠〉	入峽, 舞鶴亭, 立巖, 愁送臺, 武屹精舍 二首, 場巖, 武屹, 臥龍岩
7	鄭緯	1740-1811	『芝厓集』卷1	〈武屹看役時-甲辰移建時〉	
8	鄭橋	1799-1879	『進菴文集』卷之一,	〈敬次先祖文穆公武屹九曲韻十絕〉	鳳飛巖, 寒岡臺, 舞鶴亭, 立巖, 捨印巖, 玉流洞, 滿月潭, 臥龍巖, 龍湫

위의 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한강을 비롯한 한강 문인들은 무흘정사를 중심으로 한 무흘구곡을 詩로 표현한 작품들을 남겼다. 한강 자신부터 무흘정사 창건 당시 상당한 애정을 쏟아부었을 정도¹⁸⁾였으며, 후대 문인 또한 무흘정사의 공간적 상징성에 대해서는 부정할 이가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무흘구곡을 중심으로 한 제영시의 경우 朱子의 武夷九曲을 중심으로 둔 것이었기에 구곡 전체를 개념화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중심을 둔 경향이 짙다. 물론 구곡 가운데 특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창작된 시 또한 없진 않으나 핵심 지향은 구곡에 있었다. 위의 표에서도 확인되듯이 무흘구곡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시가 주를 이루며, 무흘정사만을 대상으로 창작한 시는 많

18) 한강이 무흘정사 창건시에 감독에 온통 신경을 기울인 나머지 말이 놀라 가파른 산길에 떨어져 매우 심하게 다친 일이 있었다. 이를 통해서도 무흘정사에 대한 애정의 정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鄭述, <答朴德凝>, 『寒岡集』 권3, 『한국문집총간』 53, 민족문화추진회, 1990, 158-159쪽 참조.

이 확인되지 않는 편이다.

그렇다면 무흘정사라는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창작한 시를 통해 발현되는 의미는 무엇인지 집약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무흘정사는 한 강에게 있어서 은둔과 온축의 공간으로 설정하고자 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속세와의 절연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었으나 단순히 둔세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었다. 그 공간에 거처하면서 보내는 시간을 생산적으로 전환시키기를 염원하였고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다면 작품을 통해 의미 부여의 양상이 어떻게 심화, 확장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하자.

산봉우리 지는 달 시냇물에 어리는데	峯頭殘月點寒溪
나 홀로 앉았을 제 밤기운 싸늘하다	獨坐無人夜氣淒
여보게 벗님네들 찾아올 생각 마소	爲謝親朋休理屐
질은 구름 쌓인 눈에 오솔길 묻혔거니	亂雲層雪逕全迷 ¹⁹⁾

성주의 서쪽에 수도산이 있었는데, 산의 동쪽에는 샘물과 돌이 맑고 깨끗하며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선생은 궁벽하고 조용함을 좋아하여 다시 작은 서재를 지어 책을 보관하고 놀며 휴식하는 장소로 삼고는 이름을 무흘이라 하였다. 손님을 사절한 시에 “친한 벗들에게 말하노니 부디 신을 신고 오려고 하지 마소. 어지러운 구름과 쌓인 눈에 길이 완전히 혼미하다오.[寄語親朋休理屐, 亂雲層雪逕全迷]”라고 하였으니, 바로 그 한 구이다.²⁰⁾

위의 두 예문은 한강의 〈武屹夜詠〉이란 시와 旅軒 張顯光(1554-1637)이 쓴 한강 선생 〈皇明朝鮮國, 故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兼世子輔養官,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寒岡鄭先生行狀〉의 일부분이다.²¹⁾

19) 鄭述, 〈武屹夜詠〉, 『寒岡集』卷1, 『한국문집총간』53

20) 張顯光, 〈行狀〉, 『旅軒集』, “州西有修道山, 山之東畔, 泉石明潔, 廻隔人煙. 先生樂其僻靜, 又構小齋, 以爲藏書遊息之所, 名之曰武屹. 有謝賓詩, 曰寄語親朋休理屐, 亂雲層雪逕全迷. 卽其一句也.”

21) 한강이 쓴 시와 여헌이 쓴 행장에 기록된 시는 〈야영〉이라는 동일한 시임에도 불구하고 3구의 시어가 ‘爲謝’와 ‘寄語’로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위의 예문은 한강 선생이 무흘정사 우거시에 쓴 漢詩로 시에서 볼 수 있듯이 본인에게 무흘정사란 은둔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은둔의 계기는 앞서 살펴본 내암과의 마찰이 주원인이었다. 때문에 속세와의 대결을 피해 들어온 은거의 공간에서 ‘獨坐’하면서 침잠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위의 시는 한강의 고독한 내면 풍경을 절절하게 표출하고 있다. 한강이 느낀 속세에 대한 자괴감이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지향은 한강 내면의심이 외부의 詩로 표출된 적극적 반응으로 감지된다. 물론 그 이유는 자신이 감내해야만 했던 인간관계의 오해와 부당함에서 비롯된 것이었기에 시적 토로의 정조는 회환과 비감의 정조가 전반을 관통하고 있다. 이점은 한강이 지은 잠에서도 아울러 확인되는 사안이다.

내 스스로 궁벽한 산속에 숨어
세상과 길이길이 하직하였네
그림자를 지우고 자취도 끊고
남은 세월 여기서 보내 볼까나

自竄窮山
與世長辭
滅影絕迹
以盡餘年²²⁾

한강에게 무흘정사란 정인홍과의 시비 문제로 인해 곤욕을 겪고 난 뒤 은둔의 시간을 함께한 공간이었다. 때문에 무흘정사와 관련된 시의 경우 공통적으로 속세와의 연을 끊고자 하는 마음이 일정부분 토로된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측면은 위의 잠에서 일정부분 이를 짐작해 볼 수 있다.²³⁾

특히 한강은 젊은 시절 博學의 학문 태도를 견지하면서 이단으로 취급되던 老莊의 서적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섭렵한 바 있었다.²⁴⁾ 이점은 張興孝가

추후 고찰이 필요하다.

22) 鄭述, <武屹題壁>, 「雜著」, 『寒岡集』卷2, 『한국문집총간』53

23) 잠의 해석과 관련하여 정우락은 ‘滅影과 絕迹으로 깊은 학문세계를 추구하고자 했던 정구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정우락, 전게서, 408쪽 참조.

24) 鄭述, <雜記>, 「寒岡言行錄」, 『寒岡全書』下, “先生於諸子百家及醫藥卜筮兵書風水之說, 無不歷略該通, 而晚年以業不精廢之.”

“이단의 서적 또한 섭렵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나 이단이 되는 까닭을 궁구
히 안 다음에는 곧 다시 보시지 않았다.”²⁵⁾라고 언급한 것에서도 간취할 수
있다.

이렇게 박학한 한강이었음에도 세상에 대한 절연을 선언하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 대한 미련이 강렬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박학을 통
한 경세 의지가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인간과의 관
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기에 세상과의 단절은 그다지 순탄할 수 없었을 것
이다. 게다가 평생에 걸쳐 심학에 정진했던 삶의 자세를 견지했기 때문에 마
음가짐을 주체하지 못하는 자신을 마주한다는 건 견디기 힘든 부분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들로 인해 위의 잠에서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 회한
의 정조 또한 일정부분 감지되기도 한다.

하지만 위의 잠 3,4구를 통해 명징하게 드러나듯이 세상에 드리워졌던 자
신의 그림자와 자취를 모두 끊고 남은 세월을 여기서 보내겠다는 다짐을 통
해 속세에 대한 미련을 없애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는 속세와의 절연과
현실 속 이상 실천의 사이에서 갈등하던 심리에 대한 내면적 응시에 해당된
다. 그 결과는 ‘全體大用’²⁶⁾으로 요약되는 학문 자세를 통해 전일하게 극복
하려는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하지만 후대 문인에게는 동일한 공간일지라도 체감하는 정조는 지향이 다
를 수 밖에 없었다.

지팡이 짚고 계시던 곳을 찾아오니
구름 낀 산이 좋은 모습 열어주네
돌에는 일찍이 지은 시 남아있고

一策尋栖築,
雲山開好顏.
石留曾題品,

25) 鄭述, <讀書>, 『寒岡言行錄』, 『寒岡全書』下, “異端之書, 亦無不涉獵, 究知其所以爲異
端之故, 然後輒不復看.”

26) 全體大用に 관해서 정우락은 “修己와 治人을 극대화한 용어로, 정구의 학문이 정밀
하되 평박하며, 투철한 학문적 인식과 사회적 실천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우락, 『한강 정구의 사물인식 방법과 세계지
향』, 『한강학의 성리학적 재발견』, 경북대 퇴계연구소, 역락, 2018, 32-33쪽 참조.

소나무는 예전 절개 띠고 있네
남기신 은택은 끝없이 흐르고
학문 익히던 자취 지워지지 않네
서로 전하며 애써오던 뜻을
여러분들에게 힘쓰기를 부탁하오.

松帶舊清寒。
遺澤流無盡，
藏修迹未刊。
相傳勤護意，
爲勉輩流間。²⁷⁾

위의 시는 藤庵 裴尙龍이 무흘정사를 찾아가 느낀 바를 표현한 것에 해당되는 작품이다. 등암의 시에 나타난 정취는 등세의 공간으로 포착하기 보다는 학문적 연대의 공간으로 인식한 측면이 우세하다. 이점은 ‘題品’, ‘遺澤’, ‘藏修’, ‘相傳’ 등의 시어를 통해 간취할 수 있다. 앞서 한강의 시에서는 등세로 인해 밀려오는 회한이 작품과 밀착된 형태로 서술된 반면, 등암의 시는²⁸⁾ 한강의 학문적 자취를 권면하려는 자세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이러한 경향은 무흘정사의 장서각 기능을 포착한 후대 문인의 시에서도 아울러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시가 이를 잘 보여준다.

홍류동 속은 천봉우리 절경을 둘렀는데
유람인은 몇이나 이 속에 이르렀을까?
만약 근원을 찾는 이로 무흘을 보게 한다면
장서가 해인사에만 있지는 않다네

紅流洞裏匝千峯。
幾箇遊人到此中。
若使尋源看武屹。
藏書何啻梵王宮。²⁹⁾

위의 시는 霽山 金聖鐸이 지은 <홍류동에 차운한 시>이다. 제산의 시각에 포착된 무흘정사는 장서각이라는 서책 보관의 장소였다. 실제 무흘정사는 한강의 서책과 유품들을 보관한 공간이었으며, 산중 도서관과 같은 역할을 가

27) 裴尙龍, <武屹齋有感. 示同來諸君子>, 『藤庵先生文集』 권1, 번역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발행한 『국역 등암선생문집』의 번역문을 참조하여 필자가 가감하였다.

28) 藤庵의 문학에 대해서는 간단한 논의가 있긴 하나 그의 시문학 전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등암에 대해서는 이세동, 「藤庵 裴尙龍의 생三事一의 삶」, 『嶺南學』31,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6, 참조.

29) 金聖鐸, <次紅流洞韻>, 『霽山集』 권2,

지고 있었다.³⁰⁾ 한강이 세상을 피해 들어와 마련한 곳이었으나, 단지 세상을 피하는 공간으로만 기능하지 않게끔 하려는 의도 또한 비쳤던 공간이기도 했다. 때문에 무흘정사에 수장된 장서는 규모가 컸으며, 이로 인해 한강의 문인들에게 讀書과 講學의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제산이 위의 시에 대한 주석의 형태로 “세상에 유람객이 산에 들어와서 모두 해인사의 장경각을 본 것으로 기이한 승경이라 여기나 무흘에 들어가 한강선생이 읽은 장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³¹⁾라고 기록한 것은 바로 도서관으로서의 무흘정사 역할을 포착한 것에 해당된다.

한강과 비슷하거나 한세대 뒤 연배의 문인들의 시에서 무흘정사는 둔세의 공간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장서각의 기능을 십분활용한 학문적 연대의 강학 공간으로 인식된 측면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후대로 이어지면서 무흘정사라는 공간은 시간이란 물리적 속성이 부여되면서 그 의미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지점이 포착되기 시작한다. 아래 시에서 이러한 경향이 부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接雲庵

발길이 닿는 곳으로 도착해보니
산 속이라 모두 흰 구름 뿐이네
비가 되어 사라진 게 얼마나 많을까
밤에 일어나 나는 듯 샘소리 듣네

行到淡淡處,
山中都白雲.
幾多爲雨去,
夜起飛泉聞.

飛雪橋

저물녘 다리에 홀로 서 있으니

獨立夕陽橋,

30) 무흘정사의 산중 도서관 기능에 대해서는 정우락의 전계 논문 및 전재동, 『한강학의 성리학적 재발견』, 7장 「정구의 저술·출판활동과 무흘정사 장서각의 장서 경향」, 역락, 2018, 211-238쪽 참조.

31) 金聖鐸, 『靄山集』권2, “世之遊客入山, 率以觀海印之藏經閣爲奇勝, 而不知入武屹. 讀寒岡先生所藏書, 故云爾.”

나는 듯 흘러 옥설을 내뿜네
홀연히 돌연 사라져 버리니
깊은 생각 누구 향해 말하나

飛流噴玉雪.
颯然轉消然,
幽抱向誰說.

滿月潭

찬 시내는 마치 마음이 있는 듯
잠시 머무름에 시간만 흘러가네
용솟음치며 돌기를 재촉하지만
흘러도 못을 넘지 못하네.

寒溪如有情,
留點去年月.
欲捉溶溶輪,
潭淺不可越.

自怡軒

산 빛이 수면을 다듬으니
산에 앉아 정신이 기쁘네
동헌 밖은 모두 풍랑이라
계곡 길이 위험할까 근심치 마오

山光磨水面,
坐帆精神怡.
軒外皆風浪,
莫憂谿路危.

石泉庵

저 인간들 덮어버리는 빗소리
베개 아래에 감춰둔 샘소리
쟁강거리는 금옥소리 만드니
여운은 다시 누구에게 전할꼬

捲彼人間雨,
藏諸枕下泉.
琮琤金玉作,
餘韻復誰傳.

臥龍巖

너에게 창석암을 물으니
무슨 연유로 와룡이라 이름했나
큰 못에 바람과 구름이 쉬어가나
어디를 따를지 처연히 바라볼 뿐

問爾蒼巖石,
緣何名臥龍.
大澤風雲歇,
悵望我安從.

場巖

옛적엔 스님의 수도처요,
jem때엔 현송을 짓던 장소네.
돌길은 아직 바뀌지 않았으나

昔時僧仙窟,
向作絃誦場.
石逕猶不改,

지금 온즉 홀로 상심하여 슬프네

今來獨悲傷.

翫瀑亭

부자의 도는 높고 심원해

夫子道高深,

천척 폭포와 견주어 본다네.

較看千尺瀑.

흘러내려 깊은 못을 만드니

流行泓作淵,

나로 하여금 눈과 마음을 열게하네

使我開心目.

위의 시는 崔麟의 〈武屹精舍八詠〉으로 무흘정사 주변에 마련되었던 撓雲庵, 飛雪橋, 滿月潭, 自怡軒, 石泉庵, 臥龍巖, 場巖, 翫瀑亭 등을 읊은 것이다. 최린의 시는 무흘정사 주변에 조성된 다리, 암자, 못, 폭포 등의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공간, 사물에 대한 흥취를 표현한 것에 해당된다.

그 가운데 주목할 측면은 시간적 거리에 따른 추억의 방식이다. 〈비설교〉의 4구 ‘깊은 생각 누구에게 말하나’, 〈석천암〉의 4구 ‘여운을 다시 누구에게 전할꼬’, 〈와룡암〉의 4구 ‘어디를 따를지 치연히 바라볼 뿐’, 〈장암〉의 4구 ‘지금 온즉 홀로 상심하여 슬프네.’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구의 정조는 슬픔과 아쉬움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스승이 계시던 옛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스승의 자취는 찾을 수 없고 무흘정사를 중심으로 한 주변 경관만이 남아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의 정한을 토로한 것이다.

즉, 동일한 공간에서도 시간적 거리에 따라 느끼게 되는 회한적 감정이 인출되는 양상을 표현한 것으로 물리적 시간의 제약이 야기하는 연대적 공간의 제한을 보여준다. 물론 마지막 8영에 해당되는 〈翫瀑亭〉에서 ‘부자의 도는 천척의 폭포와 비견되어 나로 하여금 눈과 마음을 열게 하는’ 심원한 경지로 표현하면서 전체를 마무리 짓고 있다. 이를 통해 무흘정사라는 공간의 심원한 개방성을 일정부분 엿볼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최린의 작품은 무흘정사라는 공간의 尋訪을 통해 선생의 자취를 체험하고자 하기엔 시간적 제약의 아쉬움이 유로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후대로 내려갈수록 옛 자취의 인식을 통해 후대 문인의 정

서가 내적으로 심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된다.

명승지는 전면이 장수지처로 좋은 곳이라
 그윽한 자취와 남은 향기 여기서 구하네
 태극당 안에 지팡이와 신을 달아놓고
 자양산 아래에다 서루를 세웠다네
 울타리는 완연히 바람과 연기로 보호하는 듯
 기침소리 놀라나 물과 달은 의연히 머무를 뿐
 평생토록 흠모하다 지금에야 이르니
 종일토록 배회하다 백사장에 기대네

名區全面好藏修,
 幽躋遺芬此可求.
 太極堂中懸杖屨,
 紫陽山下起書樓.
 胥儲宛似風烟護,
 警咳依然水月留.
 景仰平生今始到,
 徘徊終日倚汀洲.

선현의 남은 자취 임천에 빛나고
 지은 시 지금처럼 여전히 전하네
 비설교 위 천점이 흩어지고
 만월담 속 달하나 둥그렇게
 서운암의 한취를 스님 만나 이야기하고
 관수를 약속하며 손님과 함께 잠드네
 고통이 더디 생겨 평생토록 부끄럽더니
 강연장 앞에 옷자락 걷고 이르지 못했네

先賢遺躋賁林泉,
 題品如今尚有傳.
 石面雪飛千點散,
 潭心月滿一輪圓.
 棲雲閑趣逢僧話,
 觀水幽期共客眠.
 自愧平生生苦晚,
 樞衣未及講筵前.³²⁾

위의 작품은 무흘구곡을 중심으로 창작된 崔興璧의 「武屹雜詠」 가운데 <武屹精舍>를 읊은 시 두수이다. 위의 시는 무흘구곡 가운데 무흘정사를 중심으로 주변에 설계된 비설교, 만월담, 서운암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선현과의 시간을 뛰어넘는 추체험과 연대의 바람을 투영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첫 번째 수의 미련에서 ‘景仰平生’와 ‘徘徊終日’를 통해 표현되듯이 존송의 마음으로 고대하던 장소를 뒤늦게나마 찾는데 대한 죄송함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에서 간취된다. 이는 두 번째 수에서도 전일하게 공유되는 정서로, 선현이 남긴 구체적 장소들을 목견하면서 후학으로서 지녀야 될 지향을 되새기는 경험적 정서로 표현되었다.

32) 崔興璧, <武屹精舍>二首, 「武屹雜詠」, 『蠹窩先生文集』卷之二

남긴 암자 짓기 위해 다시 산에 들어오니
부평초 같은 생 약간의 한가함을 얻었네
와룡암 아래 구름은 아직 남아있고
만월담 앞 물은 저절로 굽어 흐르네
꽃은 옛 친구같아 와서 소식 전하고
새는 과객같아 가서 돌아오지 않네
백년 뒤에 오는 이 오늘과 같다면
다시 어떤 사람이 옛 자취를 찾으려나

爲築遺菴再入山，
浮生儘得片時間。
臥龍巖底雲猶在，
滿月潭前水自彎。
花似故人來有信，
鳥如過客去無還。
後來百歲如今日，
更何人古蹟攀。³³⁾

위의 시는 한강의 8대손인 芝厓 鄭煒³⁴⁾가 1784년 무흘정사를 재창건하고 무흘구곡에 대한 정비작업을 하면서 느낀 감회를 읊은 것이다. 지에는 여전히 옛 자취를 보존하고 있는 와룡암, 만월담과 비교되는 쇠락한 무흘정사를 대비시키면서 정사 재창건의 의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식 속에는 무흘정사의 공간을 시간을 뛰어넘는 연대의 공간으로 인식한 지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는 마지막 미련에서 ‘백년 뒤에 오는 이 오늘과 같다면, 다시 어떤 사람이 옛 자취를 찾으려나’와 같이 결구한 것에서 확인된다.

이처럼 무흘정사를 중심으로 읊은 시편을 통해 한강에서부터 시작된 공간의 인식과 그 의미가 어떠한 변천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흘정사라는 공간과 학맥을 중심으로 한 학인들의 제영시를 통해 관계 맺기의 양상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정리해 보기로 하자.

33) 鄭煒, <武屹看役時>, 『芝厓集』권1, 번역은 정우락, 「18세기 후반 영남문단의 일 경향」, 『18세기 영남한문학의 전개』, 계명대 출판부, 2011, 314쪽에 제시된 번역문을 참조하여 필자가 가감을 하였다. 아울러 위의 시를 이어 “高低山水自成林，三日來遊露素襟。欲拾遺芬深峽至，却乘春興小溪尋。花光焯灼羞華髮，潭影虛明照道心。時已暮春誰與浴，千年沂水一般清。” 한 수가 더 있다.

34) 鄭煒에 대해서는 정우락, 전계 논문, 294-344쪽 참조.

IV. <武屹精舍> 題詠詩를 통해 본 空間과 학적 家族의 관계

무휼정사 제영시의 경우 정구에서 비롯되어 후학인 최홍벽과 8대손인 정위의 시에 이르기까지 여러 수가 창작된 것을 앞에서 확인하였다. 정구와 최홍벽은 스승과 사숙 제자의 관계라 할 수 있는데, 한강 문인록인 『회연급문체현록』에 의하면 한강의 문인은 324명으로 한강의 생몰연대(1543-1620)와 최홍벽의 생몰연대(1739-1812)를 감안하면 시간적 상거는 약 200년 정도가 된다. 즉, 200년의 시간적 거리를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무휼정사라는 공간 장소인 것이다. 동일한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면서 20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정서적 연대와 교유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무휼정사는 공간을 중심으로 한 선학과 후학 간의 사상 공유와 이해가 맞물린 관계 맺음의 장으로 기억된다. 본장에서 관계 맺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나름의 의도가 있다. 전통시대 문인은 가족 구성의 방식에 있어 학문적 공동체의 결성과 밀접하게 연맥되어 있었다. 『論語』에서 공자가 공야장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보내고 형의 딸을 남용에게 시집보냈던 것³⁵⁾에서 볼 수 있듯이, 혼맥을 통해 학문적 공동체의 결성을 굳건하게 다지는 기반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때문에 가문과 학문적 공동체가 긴밀하게 연계될 수 밖에 없었다.

이때 혼맥으로 학문적 공동체의 형성이 어려운 환경, 즉 이른바 사숙 제자들과의 공유는 학맥을 대표하는 물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특징을 지닌다. 書院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樓亭이나 精舍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때는 학맥의 스승과 직접 마주할 수 없었던 시간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 스승이 영위했던 공간을 찾아 옛 자취를 목도하는 경험을 통해 사상의 공유와 연대의식이 생성되었던 것이다.

35) 『論語』, <公治長>, “子謂公治長, 可妻也. 雖在縲紲之中, 非其罪也, 以其子, 妻之. 子謂南容, 邦有道, 不廢, 邦無道, 免於刑戮, 以其兄之子, 妻之.”

무홀정사는 한강 문인에게 있어서 다양한 정사 공간 가운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한강이 세상을 떠나고자 했던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공간이기에, 그 시기에 느꼈을 심정을 추체험하는 형태로 스승과 동일한 마음을 공유하려는 인식이 생성되는 공간으로 의미가 있다.

무홀정사는 혈연과 학연이 시간을 초월하여 연맥되는 구심점으로 작용되는 공간이었다. 때문에 정사라는 공간은 거대한 ‘家’로 상징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동일한 공간을 왕래하던 개인이 정서적 공감을 영위하면서 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곳이었다. 이는 광의로 살펴봤을 때, 혈연적 학적 공동체로 묶어줄 수 있는 한강 문인의 상징체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즉, 그 구성원은 혈연이든 학연이든 家를 중심으로 연결된 廣義의 家族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세 시대는 학맥이 단순히 스승의 학문만을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스승의 사상, 행위규범, 태도 등의 전인적 측면을 온전히 존송하는 것을 모범으로 삼았다. 때문에 단순한 사승관계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학맥의 의미 속에는 공동체 지향이 내재되어 있으며, 삶의 규범으로 삼았기에 그들은 단순한 사승관계에서 벗어난 연대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광의의 가족이라 불릴 수 있을만큼 공고한 지향의식을 세대를 걸쳐 공유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강 개인에게 무홀정사는 만년의 은둔 공간이었기에 삶의 무정함과 悲哀가 녹아든 곳이자 경세의 의지에 대한 재충전의 공간으로 존재했다. 하지만 한강 학맥에게 있어서 무홀정사란 정통성을 부여하는 연대의 공간으로 상징되었고, 여러 번에 걸친 이거와 중수의 과정을 통해 생명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의지가 발현된 공간으로 의미가 깊다. 따라서 무홀정사는 둔세의 장소이자 강학의 구심처, 그리고 시간을 뛰어넘는 한강학맥의 연대 공간으로 새롭게 그 의미를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V. 맺음말

본고는 무흘정사를 중심으로 창작된 제영시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추적해 보고자 하였다. 무흘정사는 한강부터 후대 문인에 이르기까지 학맥의 중심적 역할을 한 공간에 해당된다. 무흘정사라는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읊은 제영시를 통해 선학과 후학이 정서적 공유와 연대가 일정부분 이뤄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무흘정사 제영시는 특정 공간을 추체험하여 회상하는 역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선현에 대한 회한과 존승을 통해 학적 가족으로 일체화하는 시적 발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학맥의 정서적 공유는 비혈연적 관계이나 시간을 초월하여 굳건하게 견지된다는 측면에서 廣義의 家族이라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제영시의 존재는 학인들의 친밀감을 끈끈하게 견인하면서 시간적 연대를 확장시키는 역할로 그 의미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무흘정사를 통해 형성된 학적 공유와 연대의 의미를 확장시켜 전통시대 학맥을 비혈연적 가족의 다른 형태로 연결시켜 볼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학맥을 전통시대 비혈연적 가족과 연결시켜 그 의미를 다른 시각에서 천착해 보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8년 11월 1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8년 11월 1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12월 11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金聖鐸, 『霽山集』

徐思遠, 『樂齋集』

張顯光, 『旅軒集』

鄭樞, 『進菴文集』

鄭述, 『寒岡集』

鄭煒, 『芝厓集』

崔麟, 『梅窩集』

崔興壁, 『蠹窩文集』

경북대 퇴계연구소, 『한강학의 성리학적 재발견』, 역락, 2018

김윤조 외, 『18세기 영남 한문학의 전개』, 계명대 출판부, 2011

남명학연구원 편, 『한강 정구』, 예문서원, 2011

배상룡 저, 박미경 역, 『국역 등암선생문집』, 한국국학진흥원, 2014

윤천근, 『남인 예학의 선구 - 정구』, 한국국학진흥원, 예문서원, 2006

정우락, 『한강 정구』, 예문서원, 2011

정우락, 『한강 정구와 무흘구곡 이야기』, 경인문화사, 2014

김학수, 「鄭述 文學의 創作現場과 유적에 대한 연구」, 『大東漢文學』29, 大東漢文學會, 2008

정병호, 「寒岡 鄭述와 武屹時代」, 『東洋禮學』36, 東洋禮學會, 2017

정우락, 「성주 및 김천 지역의 구곡문화와 무흘구곡- 무흘구곡의 일부 위치 修正을 겸하여 -」, 『퇴계학과 유교문화』54,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4

_____, 「寒岡 鄭述의 武屹 경영과 武屹九曲 정착과정」, 『한국학논집』48,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2

_____, 「山中圖書館 ‘武屹精舍 藏書閣’의 藏書 性格과 意味」, 『영남학』20,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1

_____, 「寒岡 鄭述의 武屹精舍 建立과 著述活動」, 『남명학연구』28,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 2009

윤진영, 「寒岡 鄭述의 유거 공간과 《武屹九曲圖》」, 『정신문화연구』118, 한국학 중앙연구원, 2010

이세동, 「藤庵 裨尙龍의 生三事一의 삶」, 『嶺南學』31,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6,

Abstract

The relationship and meaning of space and school register family analyzed through <Mu-Heul-Jung-Sa> a poem about the landscape

Han, Eui-soong

This paper intends to research on aspects of a poem about the landscape created with focus on <Mu-Heul-Jung-Sa> and trace the meaning of this phenomenon. <Mu-Heul-Jung-Sa> is important because of its roles as center of Han gang academic line from Han gang to writers in the later time. <Mu-Heul-Jung-Sa> used to be recognized as secluded space but later in time the meaning of solidarity space was more highlighted. Han gang writers created a poem about the landscape within certain space called <Mu-Heul-Jung-Sa> and tried to encourage emotional share and solidarity between older scholars and younger scholars. At the same time, <Mu-Heul-Jung-Sa> a poem about the landscape did not stay as the role of re-experiencing certain space and remember it. It made further progress and importance as starting point of developing unifying school register families through remorse and veneration towards the older scholars.

Emotional share of an academic line centered within certain space especially could be called as an extended meaning family formed

though unrelated human networking in terms of pursuing strong bonds sustaining through eras. A poem about the landscape needs to be magnified as a solidifying method of school register family because of its role as catalyst for emotional bonds between scholars and connection of different eras.

It would contribute to create new perspectives to regard the traditional academic lines as the transformed version of the unrelated families by magnifying the meaning of bonds and share of academic line formed by <Mu-Heul-Jung-Sa>

Families in the traditional times are based on the space of home and ties of blood with relatives. Applying this relationship to academic lines, the ties of blood could be replaced by strong bond between teachers and followers and the space of home could be substituted by the space called Jung-Sa.

This point shows that the existence and meaning of academic line has strong importance in extension of traditional families. This paper has its values of naming the academic lines compared to school register families which is unrelated family network in traditional era and analyzing the meaning of it though <Mu-Heul-Jung-Sa> a poem about the landscape.

key words :

Jeong-goo, <Mu-Heul-Jung-Sa(武屹精舍)>, A poem about the landscape, space, academic family, solidarity, unrelated relationship